

*행동: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행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얼 먹지)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 / 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희화: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비유.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백, 대화, 방백에 대해 알아보자!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으로 간주.

***다각적으로 조명하다:** 서술자 혹은 인물 들의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사건 전개 양상

ㄱ. 대화 無: 사건 전개 압축적→빠름

ㄴ. 대화 有: 사건 전개 구체적→느림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ㄱ.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곤충을 머리,가슴,배로 쪼갬)

ㄴ.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과일을 사과,배,감 등으로 나눔)

ㄷ.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사과,배,감 등은 과일로 묶음)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ㄱ.서술자가 인물 및 상황에 대해 감정 반영, 해석, 판단 등의 주관적 서술이 뚜렷함.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ㄴ.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듯한 말투를 사용.

-(~더라, ~리오, ~것다, ~렸다 등)

☞(느낌표가 있어 감정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일 가능성이 높다)

[지문 변형]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한다. 별주부 내외 참으로 곤란하겠구나! 곤란하겠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대비: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낙살: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이나 성미.

*연민: 대상의 처지에 대해 불쌍하게, 딱하게, 가련하게 여김.→(나의 잘못함을 바탕으로 한 '미안한 감정'을 '연민'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뜻임에 주의하자)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놀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서사>에 대해 알아보자!

<서사>는 곧,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과 '줄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주로 소설에서 두드러진다. '인물의 회상이나 생각'처럼 시간이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서사가 지연된다.

문학에서 <'새'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자!

ㄱ. 접동새(두견이): 한, 슬픔

ㄴ. 까마귀: 흉조, 부정적 세력

ㄷ. 까치: 길조, 행운

*묘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문학에서 '사실적', '구체적', '묘사', '대화', '행동', '일상'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사물 vs 자연물>을 비교해보자!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감각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산, 높은 하늘, 빨간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감각 vs 복합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 눈, 눈이 내린다!) ☞운율 형성!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ㄴ. 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 ㄷ. 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ㄹ. 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A): 원인, (B): 결과의 다양한 양상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 (A)가 (B)를 불러 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독백 vs 대화 vs 방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 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로 봄)
- ㄷ. 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으로 간주.

*상: '임금'의 높임말 =(대군)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원인 혹은 대안 제시함 →(긍정적)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화자나 인물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비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자!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문학 배경의 종류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 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 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 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세속: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고전 시가에서 주로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물질적, 명예, 성공)으로 봄. (↔탈속, 자연)

*탈속: 세속적이지 않은 →고전 시가에서 주로 자연 속을 의미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등의 사용은 현장감 및 생동감과 관련 있다.

(**세속, 공명, 속세, 부귀, 벼슬, 임금, 학문 vs 자연, 소박, 은거, 탈속**)

의 대비 테마는 고전 시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천거: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여 쓰게 함.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 관련 어휘 맥락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울림소리: 모음 전체, ㄴ, ㄹ, ㅁ, ㅇ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음수 vs 음보>

ㄱ.음수: 글자 수

ㄴ.음보: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단순히 어절의 단위가 아님!)

※<음보의 느낌>을 비교해 보자!

ㄱ.3음보: 주로 하층, 빠름, 동적

ㄴ.4음보: 주로 상층, 느림, 정적

*유보적: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두는 것.

*객관적(있는 그대로)-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

*주관적-개인의 생각, 감정 등이 반영.

*<세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지만 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우회적: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또는 그런 것.

※<시적 어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참여시에 대해 알아보자!>

참여시란, 시의 사회 참여를 조장하는 현실주의 시를 말한다. 시인도 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고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시는 현실에 대한 비판, 저항, 고발의 내용을 담게 된다. 4.19와 5.16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민중에 대한 탄압 속에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한 시들이 이에 속한다. '역사 앞에서(조지훈),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등은 민중의 한과 역사 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며, '풀(김수영)'도 억압에 대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준 것이다.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에 대해 알아보자!

ㄱ.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 (웃음+비판 목적)

ㄴ.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언어유희! ☞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

i.동음 이의어 활용

-운봉의 갈비(사람의 갈비뼈)를 직신,"갈비(소갈비) 한대 먹고 지고."

ii.유사 음운의 반복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iii.언어 도치를 활용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들여라."

iv.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올라간 이 도령인지 삼 도령인지~

<과장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 ㄴ. 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 흔히 과장법을 크게 부풀린 표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보다 많이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법이다.

- *환상적: 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된.
-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
- *동화적: 환상적+비현실적

▶ 환상적 분위기: 동화처럼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감각적인 묘사

- 산문: 주로 수사법과 관련됨
- 운문: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됨

*빈번한 장면 전환: 인물, 배경, 사건 등도 그에 따라 자주 바뀜.

※문학 작품 속 <비>의 상징성

- ㄱ. 폭우: 시련, 고난 상징
- ㄴ. 장마: 우울함, 지루함 상징

※수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1) 무형식의 형식
 - 2) 비전문적인 글
 - 3) 개성의 문학
 - 4) 고백의 문학
 - 5) 소재의 다양성
 - 6) 1인칭적인 문학-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 *빈 비(빈 배): 고전 시가에서 세속적 욕심이 없음을 의미함.

<여음구>에 대해 알아보자!

:여음구는 시가 양식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를 말한다. 우리 문학에서는 고려 가요와 민요 등에서 여음구가 발달되었는데, 의미표현보다는 감흥과 울조를 일으키는 어절이나 구절을 나타낸다.

*구차하다: 살림이 몹시 가난하다.

※<발화 vs 생각>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발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말하는 것. 큰 따옴표 사용.
- ㄴ. 생각: 말하지 않은 속 마음, 작은 따옴표 사용.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 생각○, 발화 ×

※고전 소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비현실적인 요소 多
- ㄴ. 사건의 우연적 전개
- ㄷ. 서술자의 개입 등

※<소설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냉소 vs 자조>

-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경외감>: 존경+두려움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이미지의 어휘이다.

※<사례와 예시>

-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모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 *상공: 조선시대의 벼슬 명.
- *조용: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상서롭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만약, 장면이 단 한 번 교차(혹은 교체) 된다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빈번한 장면 교차(혹은 교체)가 아니다.

▶ 과거는 대화 없이 사건이 빠르게 압축적으로 서술되고 현재는 대화와 함께 사건 전개가 느린 편이다.

▶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인물의 갈등이 원래 있던 상태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과 관련되지만 인물의 갈등이 없거나 인물의 갈등이 최초 나타나기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위 시의 '노래'와 '묘비령'은 활유법에 해당)

※<반어 vs 역설>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님을 보내지 않았다)

*표상: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시에서 우물, 샘터, 거울 등 시적 화자의 모습을 비춰보는 행위는 대부분 <성찰>과 관련된다.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이리)

▶소설에서의 <사건>은 꼭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주목할 만한 일은 모두 <사건>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ㄱ.직접-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ㄴ.간접-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

▶(관념적, 추상적) VS (구체적, 실제적)의 구별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원인 vs 이유>를 구분해 보자.

ㄱ.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ㄴ.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는 까닭이나 근거.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에 대해 알아보자.

ㄱ.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

→(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ㄴ.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

→(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뭘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소작농: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

→(마름과 소작농이 문학에 등장하면 대부분 계층간의 갈등이 있음을 생각하자)

<문학에서의 이상향>

문학에서의 '이상적 세계(공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의 모든 불만과 걱정이 없는 곳(→무결점의 완벽함)으로 현실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므로 가난과 고생은 여전히 존재하는 고향집에 아무리 따뜻한 인정과 인간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이상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시의 전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등장 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설명 및 해석한다.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관조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주관적 심리 상태가 개입 되어 있으면 관조적 태도라고 보고 어려움)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또는 그런 것

▶<현학적 표현>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주제와는 별로 상관 없는 알팍한 지식 따위를 동원하여 글의 치장을 중시할 때 사용된다. (주로 고전 소설에서 가끔 등장)

※<액자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테두리와 내용물이 한 세트인 것처럼 한 작품에 2개의 이야기(겉이야기+속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사건>:'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물의 대화나 행동 모두가 사건이 될 수는 없다.

※문학에서의 '입체적~' 총정리!

- *입체적 서술(입체감 부여): 한 대상으로 둘 이상의 각도(관점, 입장, 시간, 공간, 감각)에서 바라보는 것.
- *입체적 구성: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현대 소설, 특히 심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남)
- *입체적 인물: 성격이 큰 틀이 변하는 인물.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어라, -구나, -나'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방랑 vs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방랑: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많이 작용)
- *방향: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님.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작용) ⇨ 부정적

♣시에서 <눈>이 나오면,

- 1) 부정적: 시련, 고난 상징 (특히 눈보라) ▶약 60%
- 2) 중립적: 그냥 겨울을 나타내는 배경 ▶약 30%
- 3) 긍정적: 낭만적 아름다움 ▶약 10%

♣<눈물>의 이미지

- 1) 부정: 슬픔, 고통, 아픔 등 ▶약 70%
- 2) 긍정: 기쁨, 공감 등 ▶약 30%

※<수사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1)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 2)강조법: 과장법, 영탄법, 반복법, 점층법, 연쇄법, 열거법
- 3)변화법: 도치법, 설의법, 인용법, 대구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우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의 (섭리&진리&이치)등이 나오면 그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기 마련이다.

※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내부적 관점: 작품 자체에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서술 방식을 통해 감상.
- ㄴ. 외부적 관점: 사회 문화, 독자, 작가와 관련지어 감상.

▶소설에서 과거의 서술은 주로 인물의 회상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시에서 보통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면 화려하고 행복한 과거와 초라하고 불행한 현재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대명사 '저'의 쓰임

- ㄱ. 1인칭 '나' 낮춤
- ㄴ. 3인칭 재귀

▶시에서 '무상함'은 대상의 부재(죽음, 이별)에서 자주 등장한다.
▶문학 작품에서 <환상적 분위기>는 고전 소설의 비현실적인 장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색채어>는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볼그스레하다, 새빨강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도치: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움직임, 동적, 역동적, 동사)는 밀접한 맥락으로 (상태, 모양, 정적, 형용사)와 대립되는 국어 시험의 빈출 테마이다.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에서 여운을 남길 때는 보통 종결어미로 끝맺지 않는다.
(뒤에 남기며...)

▶시가 '고향'을 배경으로 하면 약 80%는 (상실감, 그리움, 추억)을 20%는 (안식, 평화)를 나타낸다.

※배경을 통한 심리 표출의 예시

- *추적추적 비가 또 내리고 하늘은 또 흐려졌다 →(우울함)
-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희망찬)

▶소설에서 부정적 인물의 존재는 이와 대립되는 다른 인물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갈등은 주로 부정적 어휘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출제자는 소설에서 부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심리 상태가 나타나면 갈등이 없어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연결 지어 수험생을 착각하게 만드니 조심해야한다. 인물 간의 갈등은 서로 대립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희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대사와 행동의 문학
- ㄴ. 현재화된 인생 표현의 문학
- ㄷ. 대립과 갈등의 문학
- ㄹ.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받는다.

※<희곡의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1)형식상

- ㄱ.해설: 희곡의 첫머리 부분으로 막이 오르기 전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시간적, 공간적) 등을 설명하는 글
- ㄴ.지문: 배경, 효과, 조명, 등장 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로 '바탕글'이라고도 하며 현재형으로 쓴다.
- ㄷ.대사: 등장 인물이 하는 말로 모든 극적인 주제와 사건은 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내용상

- ㄱ.인물: 의지적, 전형적, 개성적 성격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 ㄴ.사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갈등과 긴장을 몰고 가는 압축되고 통일된 전개이어야 한다.
- ㄷ.배경: 사건이 전개되는 때와 장소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시적 긴장감>에 대해 알아보자.

:표현 기교가 사용된 어려운 시어 해석에 집중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

- 시어의 의미 파악이 너무 쉬우면 시적 긴장감이 생기지 않음
- 보통 '역설법, 반어법, 대조법' 이 사용되면 시적 긴장감이 생김.

☞<갈등>에 의해 형성되는 <소설의 긴장감>과는 다른 개념이다.

※동일 시어의 대조적 속성

*<물>의 이중성

- 1) 긍정적: 생명의 근원 →(나)의 '물'
- 2) 부정적: 죽음의 환경 →(공무도하가)의 '물'

*<불>의 이중성

- 1) 긍정적: 부활, 강력한 힘, 열정, 포용성 →(가)의 '불'
- 2) 부정적: 재앙, 소멸, 죽음, 고난의 환경 →(나)의 '불'

☞<물>, <불>과 같이 대립적인 이중성을 지닌 시어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신빙성: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인용>에 대해 알아보자!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 ☞(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내적 독백>은 다른 이를 의식하지 않는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동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선지에 내적 독백이란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작은 따옴표를 먼저 찾아보자.

-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주로 인물의 <회상>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
- ▶소설에서 배경은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정적 배경: 부정적 심리와 상황 (비가 계속 내림-우울한 내면)
*긍정적 배경: 긍정적 심리와 상황(따뜻한 봄 햇살-밝고 활기찬 심리)

▶<대결 의식>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을 타파 및 극복의 마음이 강력할 때 나타난다.

▶'전망'은 문법적으로 미래형(~ㄹ 것, ~하리다 등)과 관련이 있다.

▶<대상과의 일체감>은 보통 고전 시가에서 자연물을 동경하며 그 것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로 나타난다.

※시제별 관련 요소

- ㄱ.과거: 회상, 추억
- ㄴ.현재: 현장감, 사실감
- ㄷ.미래: 가정, 추측, 의지

*시간의 순환적 흐름: 아침-점심-저녁-밤-아침...

봄-여름-가을-겨울-봄...

1시-2시-3시

2000년-2001년-2002년

※<문학의 미적 범주>에 대해 알아보자.

- 1)비장미: 자연을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
- 2)우아미: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
- 3)골계미: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풍자하고 조롱함.
- 4)숭고미: 절대적 가치를 지닌 숭고한 대상을 우러러보고 그 속성을 본받아 따름.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소설에서 <새로운 사건>은 새 인물과 새로운 배경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서술자의 서술의 적고 여운을 남기거나 암시가 많을수록 독자가 판단할 거리는 많아진다. 즉,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현실의 총체적인 모습: 정치, 경제, 문화, 도덕성 등

▶<어투>는 말의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면 어투도 바뀌기 마련이다.

※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 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나라~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 ㄷ. 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 ㄹ. 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천 원 권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나요?)
- ㅁ. 상대의 호기심 유발 (결과가 궁금하시죠?)

※<시나리오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 S#(Scene Number) : 장면번호
- NAR.(Narration) : 해설. 등장 인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들려 오는 설명체의 대사
- F.I(Fade In) : 화면이 차차 밝아짐. 용명
- F.O(Fade Out) : 화면이 차차 어두어짐. 용암
- O.L(Over Lap) : 앞 화면에 뒤의 화면이 포개어지는 기법
- C.U(Close Up) :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되는 것
- II(Iris In) : 화면 속의 임의의 한 점을 원형으로 확대시키면서 화면을 나타내는 것.
- IO(Iris.Out) : 화면이 천천히 닫히는 것.
- PAN(Panning) :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

- ▶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 ▶ 현대 소설의 시대적 배경: 개화기, 일제, 광복, 전쟁, 독재 정치, 산업화&도시화 등

*시상의 확산: 시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대상이 넓어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나에서 우리로 확산

- *시상의 전환: 화자의 태도나 감정이 바뀜 (그리움→증오심)
- *감정의 심화: 감정이 확대됨 (그리움→사랑)

※<자연 친화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즐기며 자연 속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ㄱ.자연에 의존, ㄴ.자연과 조화, ㄷ.자연과 화합, ㄹ.자연 사랑)

- ▶ 유사한 구조의 문장: 도치법, 대구법

*관습: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보편성)하는 질서나 풍습.

*관습적 표현: 속담, 격언, 관용구, 한자성어 등

- ▶ <관습적 표현>은 <보편적>과 관련된다.

*차설: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고사>라고 해서 사자성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상: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 *신성성: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신적인 특성
-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특성
→<신성성>이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전기적> 특성이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 *처사: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
→(현실 세계와 관련된 신분)

- *패소: 소송에서 짐.
-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호리다: 매력으로 남을 유혹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다.
- *명문: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
- *명년: 내년

- ▶ 실제 지명은 '종로'처럼 고유명사이어야 하며 어느 작품에서든 항상 사실감(현실감)을 부여한다.
- ▶ 문학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면 인물과 배경이 바뀌기 마련이다.

- *침지: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구도: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함.
- *심미적: 아름다움을 살피어 찾는 특성.→(미적 감각과 관련됨)

- *작일: 어제, *명일: 내일, *유시: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 *액땀: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써 무사히 넘김.

*주술: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모호(애매) vs 중의 vs 모순

- *모호(애매):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직유법 vs 은유법

- ㄱ.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 ㄴ.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 *관념: 1.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관념적=주관적) 덕목
2.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관념적↔현실적)

(*관념적 시어): 우리의 감각(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으로는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표상·상념·개념 또는 의식내용을 가리키는 말.

- ▶ (관념적, 추상적, 공상적) VS (구체적, 실제적, 현실적)의 구별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경이감 vs 경외감

- *경이감: 놀랍고 신기한 느낌.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문답 방식>

- ㄱ.2인 대화형: (철수)년 몇 살이야? (영수) 올해 20살입니다.
- ㄴ.1인 독백형: 나이가 몇인가. 내 나이 이제 40. 나를 돌아보자.

※<점층법 VS 점강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 ㄴ.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전망: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자신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것일 때 사용)

*속성: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객관적)
☞나무에게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무의 속성≠고독)

※<시의 통일성 확보> 관련 내용 기출

-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2016 수능)
-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형태적 통일성 구성 (2015 수능)

- ▶형식적인 통일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통일성도 국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 ▶관용적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로 속담, 성어 등을 포함한다.

※오답률 높은 소설 문제의 사례들

- 1)문장이 길어서 서술어의 주체를 헛갈리는 경우
- 2)생략된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 3)대명사(이, 그, 저)로 제시된 인물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 ☞소설 지문에 <인물 명>이 나오면 헛갈리지 않게 적절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 ▶시에서 <회고>, <회상>의 장면이 나오면 대부분 과거의 긍정적인 (평화, 아름다움, 추억) 분위기와 현재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대조되기 마련이다.
- ▶특정한 시적 청자의 존재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자를 부르는 말(~이여, ~여)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 ▶<자연 합일>은 주로 고전 문학에서 속세를 떠난 이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 ▶<생명성, 생동감, 활기참, 역동적>은 같은 맥락으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다.

▶고전 소설에서 사랑하는 두 인물의 (첫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은 흔한 패턴이다.

※소설의 <긴장>과 그 해소인 <이완>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벅찬 상태니까 오히려 더 <긴장>상태가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소설에서 사용되는 긴장과 이완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소설의 <긴장>과 <이완>은 대개 다음의 상황에 주로 나타난다.

- 1)긴장: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직전의 상황 →(서사적 긴장)
- 2)이완: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의 상황

▶비현실적 요소가 많은 고전 소설에서 초월적 존재나 그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초월적 존재 및 초월적 배경>관련 제시문

*2015 수능 <보기>제시문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역사적 실제성은 실제 일이 벌어진 시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지시(이, 그, 저)의 말에 대해 알아보자!

- ㄱ.지시 관형사: 체언 수식(이 사람, 저 물건, 그 꽃)
- ㄴ.지시 대명사: 조사가 붙을 수 있음(이것은, 그녀의, 저기에)
- ㄷ.지시 부사: 용언 수식(여기에 놓아라. 거기에 가라. 저기는 말고)

- ▶<인간 소외>현상은 70~80년대 현대 소설의 단골 요소이다.
- ▶고전소설에서 <조력자>는 주로 주인공이 위기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 ▶<고백적 진술>은 대개 '회상, 성찰, 깨달음'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 상대를 의식하고 말을 하는 <대화>와는 반대의 맥락이다.
- ▶대개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일 때 주로 초월적(이상향)인 삶을 꿈꾸거나 추억이 깃든 혹은 화려한 과거를 회고한다.

▶고전 시가에서 자연 속의 한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개 자연 대상으로 사소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문학에서 <늪>이 소재로 나오면 <세월의 빠른 흐름>을 아쉬워하는 심리 상태도 같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늪>→<세월의 빠른 흐름>으로 연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지문에서 <늪>을 통해 <세월의 빠른 흐름>을 연상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복', '운율', '유기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시간의 순차적 흐름의 예시: *아침→점심→저녁→낮
*봄→여름→가을→겨울

▶소설에서의 <긴장감>은 사건 혹은 갈등이 일어나기 직전에 많이 발생된다.

▶<봄>을 묘사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생기', '활기'와 관련된다.

▶<대조>, <대비>, <차이점>은 모두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관객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고전 극 문학에서 무대와 관객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말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장면의 극대화>에 대해 알아보자.

☞판소리에서 인물의 성격 및 행동이 이전의 일관성과는 다르게 묘사되거나 이야기의 전개가 전체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의도를 최대한으로 구현하는 전개 방식이다.

→(주로 대구, 열거, 과장의 기교를 사용함)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암행어사 신분의 이몽룡을 만나 언행이 바뀌는 장면의 극대화)

*치하: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침중: 병세가 심각하여 위중함.

*경동: 놀라서 움직임.

*경: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이인칭 대명사.

*사직: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생각되다>, <내가 하는 생각~>, <~공상>이라는 직접적인 말대로 글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내면 의식>의 서술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소설에서 장면의 전환에는 보통 새 인물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성격에 따른 인물의 유형

ㄱ.평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단일함.

→(주로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

ㄴ.입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함.

→(주로 '현대' 소설의 인물 유형)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서사성>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 <줄거리>가 생긴다.

▶<어리숙한 인물>은 보통 사리 분별이 미숙한 어린 아이를 가리키며 순수하고도 어리숙한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서술 형태의 소설에 많이 등장한다.

*토속어: 어떤 지방의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말.

☞자연물이 다 토속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눈에 보이는 대상물.

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문체>에 대해 알아보자.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글의 인상에 의해 효과적으로 나타낸 개성적 표현.

1)간결체: 문장을 짧게 끊어 간결하게 표현한 문체

-외향적인 사람은 화려하다. 갖춘 것도 많고 인기도 좋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부터 귀여움도 받고 인정도 받는다. 여기저기 불러 다닌다.

2)만연체: 섬세한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여 문장을 길게 쓴 문체

-고수레가 신에게 먼저 제물로서 음식을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삶을 미루어 볼 때에 이는 다른 생물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신념 어린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3)강건체: 말하는 투가 굳세고 강하여 호소력이 느껴지는 문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통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4)우유체: 말하는 투가 부드럽고 온화하여 다정하게 느껴지는 문체

-달 아래 박꽃이 화안한 저녁이면, 군색스럽지 않아서 좋은 넓은 마당에는 모 깃불이 타오르고, 그 옆에는 멍석이 깔린다.

5)화려체: 아름다운 말과 음악적인 리듬, 색채감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꾸미는 말을 사용하여 글을 화려하게 쓴 문체

-붉지 않으면 희거나 누르거나 푸르거나 하더라도, 꽃이란 꽃은 다 잎보다도 더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6)건조체: 문장에서 꾸미는 말을 없애고,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쓴 문체

-동물들의 의사 소통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크게 네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특히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는 동물이다.

7)문어체: 일상의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글에서만 쓰이는 점잖고 예스러운 문체

-"재상가(宰相家) 천비 소생(賤婢所生)이 비단(非但) 너뿐이 아니어든, 네 어찌 방자함이 이 같으뇨? 차후(此後)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안전(眼前)에 용납(容納)지 못하리라." 하니, 길동이 감히 일언(一言)을 고(告)하지 못하고, 다만 복지유체(伏地流涕)뿐이라. 공이 명(命)하여 물러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소(寢所)로 돌아와 설위함을 마지 아니하더라. (홍길동전)

8)구어체: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문장에 사용한 문체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다."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 <서술자의 개입>여부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알 수 있지만 <인물의 발화>는 발화자체가 해당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발화에는 당연히 심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발화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 <장면의 구체적 제시>는 대개 인물의 대화, 심리 상태, 묘사 등이 함께 나타난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소설 구성>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1)중심 사건의 수와 형태에 따라

- ㄱ.단일 구성: 중심 사건 1개
- ㄴ.복합 구성: 중심 사건 2개 이상
- ㄷ.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속 이야기)
- ㄹ.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서 전개.

2)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 ㄱ.평면적 구성(순행):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진행됨
- ㄴ.입체적 구성(역순행):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 <초월적 공간>은 '비현실성' 혹은 '환상적' 특성과 관련된다.

★'절대로', '반드시', '꼭', '유일한', '오직' 등 다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수식어가 있는 선지는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높다.

▶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은 시는 찾기 힘드니 시에는 으레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선지의 다른 부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토속적: 그 지방에만 특유한 풍속을 담은.

*향토적: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사건의 연속성: 두 사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함.

*부마: 임금의 사위

*존명: 남의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

→이 어휘를 사용하는 자체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 사례가 딱 한 번만 나오면 병렬, 나열, 열거, 반복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운문체와 산문체>에 대해 알아보자.

ㄱ.산문체: 율격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을 기술하는 문체

ㄴ.운문체: 외형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문체. 향가, 속요, 가사 따위에 쓴 문체

☞<판소리계 소설>은 산문체+운문체의 혼합 형태이다.

▶ 유교적 가치: 임금, 학문, 효 등과 관련됨.

*역전적 구성: <현재→과거>의 형태로 주로 회상의 장면을 통해 이루어 짐.

▶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은 <외적 갈등>과 관련된다.

*담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녹봉: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사: 정치 또는 행정상의 일.

*간언: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

*예화: 실례를 들어 하는 이야기.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자조: 자기를 비웃음.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고전 소설에서는 대명사(나, 너 등)보다는 명사(낭군, 선군 등)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술어의 주체가 화자인지 청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메모해 두어야 한다.

끝